

News

하나금융 이사회, 차기 회장 후보에 함영주 부회장 단독 추천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그룹 이사회, 차기 회장 후보에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단독 추천... 은행장과 부회장직 수행하며 성장 이끌어와 최고 적임자라는 의견
다음달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 임기는 3년

금융당국 "코로나 금융지원, 3월말 종료여부 결정 안돼"

이데일리

금융당국,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여부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 일각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전면 종료라는 관측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
종료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진행,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해 고려할 계획...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

해외 영토 넓히는 은행들... 포스트 코로나 발빠른 준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권, 새해 들어 해외 지점 확대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사업전략을 수세적으로 펼치던 데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세적으로 전환하려는 포석 해석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농협은행... 현재 해외 7개국에 총 9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중... IBK기업은행, 폴란드를 동유럽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무소 설치에 한창

외국인에도 '디지털 위안화' 개방...중국, 디지털화폐 주도권 잡나

경향신문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데뷔 무대로 삼아... 디지털 위안화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외국인도 중국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만들어 식당 등에서 이용가능
기축통화로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제시... 다만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

보험료 싼 '무해지보험', 자취 감춘다... 4월부터 판매 중단

머니S

보험사들, 오는 4월부터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 판매불가...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이 보험사들에게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한 모범 기준 마련... 무·저해지보험은 퇴출하지만 이 상품을 대체할 신상품은 차후 내놓는다는 의미

새 실손보험 "일년 보험료 반값" 내걸어도 갈아탄 사람은 '미미'

조선비즈

보험사들의 4세대 보험으로 전환 관련 여러 혜택 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
지난달 기준 주요 5대 손보사들의 전환건수는 최소 15,000건으로 예상되나 작년 7~10월 전환 평균 건수에 비해 소폭 개선된 양상... 소비자들, 전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

증권사, 개인형IRP 12조원 돌파...디폴트옵션으로 수익률 높인다

이코노믹리뷰

작년 말 기준 증권사 IRP 적립금은 12조 1,819억원으로 집계... 1년 만에 61.5% 급증...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기 국면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 대두된 것도 가입열풍 부채질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하락세 접어들며 주춤하는 모양새...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 연속 하락세... 테이퍼링 조짐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

증권가에 다시 부는 'CMA 열풍'...잔고 70조 재돌파

아시아투데이

지난 4일 기준 증권사 CMA 일일 잔고는 70조 1,732억원으로 집계... 역대 4번째로 많은 잔고...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규모
최근 주가흐름이 지지부진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킹 통장 찾는 수요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 증권사들, CMA 수익률 높여 경쟁 치열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